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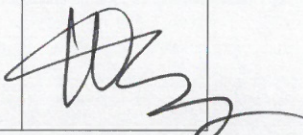




2021년 제3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자	사무국장	회장
결 재			
			
			

일시: 2021. 12. 06.(월)

장소: 광진구청 종합상황실

참석인원(21명)

1. 의 장 : 윤재상

2. 참석인원 : 36명 중 21명 참석

김승돈(이사) 장길호(이사) 김숙희(이사) 윤영유(이사)

이용만(이사) 최영철(이사) 이정섭(이사) 조용철(이사) 전수길(이사)

김희채(이사) 정우성(이사) 배운섭(이사) 이용기(이사) 최두호(이사)

신용하(이사) 정효조(이사) 양태화(이사) 장성대(이사) 김성수(이사)

이용진(이사)

광진구체육회

- ◎ 개회
- ◎ 국민의례
- ◎ 진행순서 안내
- ◎ 참석임원 소개
- ◎ 규정현안 업무설명
- ◎ 개회선언
- ◎ 인사말씀
- ◎ 보고안건 보고
 - 체육회 임원 변동 보고
 - 회원단체 변동 보고
 - 사업 및 행사 보고
- ◎ 심의안건
 - 회원종목단체 가입 의결의 건
 - 광진구체육회 정관 개정 총회 안건 상정의 건
 -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정의 건
- ◎ 기타토의
- ◎ 폐회선언

- ◎ 개회
- ◎ 국민의례
- ◎ 진행순서 안내
- ◎ 참석임원 소개
- ◎ 규정현안 업무설명
- ◎ 개회선언

의 장(윤재상) : 그럼 지금부터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체육회 재적이사 총 36명중 2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차 광진구체육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 회 자(이용진) : 이어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 장(윤재상) : 문화체육과장님 의정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나장이 와서 처음 의정 설명을 하셨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사 회의에 참여해주신 이사, 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장배 합동개회식을 했고요. 단풍길 걷기대회를 대공원에서 499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지하철입구

에서 한 달간 백신독력 캠페인을 지도자들과 임원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한 달간 백신독려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저희 광진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16일 목요일 3시에 광진구체육회 유공자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 3시가 아니고 시간 정정해야겠네요. 맨 처음에 3시로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단체장이 일반 행사에 참여하면 선거법에 절충이 된다 해가지고 근무 시간내로 하다보니까 저녁6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8시에 유공자시상식을 하는데 코로나로 침체되어있던 체육인들에게 유공표창을 통해서 광진구 동호인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자하니 이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근심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착용 잘 하시면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기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광진구체육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진 체육인류를 실행하기 위하여 임원진 여러분과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윤재상) :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자(이용진) : 먼저 전차 회의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이사회는 2021년 5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의결안건으로는 첫 번째, 광진구체육회 관리단체 제명안 총회 안건 상정의 건, 두 번째 광진구체육회 제 규정 개정의 건으로 재적이사 37명 중 24명의 이사님이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안건입니다. 먼저, 광진구체육회 임원 변동사항으로 광진구체육회 정관 제27조에 따라 신용하 광진구청 행정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인준 되었으며, 이상엽님, 윤종장님, 김기석님 이사가 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단체 임원 변동사항입니다. 광진구바둑협회에서 홍도홍 회장님이 사임하고, 김충현님 회장이 인준되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정구협회가 광진구소프트테니스협회로, 광진구 세일링 연맹이 광진구 요트협회로 회원 단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행사보고입니다. 광진구체육회 법인출범기념 어르신 장수 건강상 시상식이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6시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에서 20개 종목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실천에 모범이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 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 광진구체육회 회원단체 간담회가 2021년7월7일 수요일 14시에 광진구청에서 육상, 축구, 테니스, 풋살의 단체장님을 대상으로 회원종목단체 현안 및 체육시설 확충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구체육회 백신접종 캠페인을 2021년 10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약 한달 간 구의역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백신접종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진구체육회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이 2021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인기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택견, 바둑, 요트 종목을 대상으로 비인기 종목 단체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비인기 종목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광진구체육회 협회장기(배)대회 합동개회식이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10시에 27개 회원종목단체를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회원종목단체 주관 협회장기(배) 대회 개회식을 합동개회식으로 진행하여 개별 개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 광진 구민 가을(단풍)길 걷기대회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진행하였고, 26일 금요일 하루는 대면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광진 구민 499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가을 길 걷기대회를 추진하여 스포츠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의 장(윤재상) : 네 지금 보고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총 3건이며 첫 번째,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의결의 건, 두 번째, 광진구체육회 정관 개정 총회 안건 상정의 건, 세 번째,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정의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의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 장(윤재상) :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자(이용진) : 의결주문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입을 심의·의결 한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정관 제 10조 및 가입 탈퇴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가입을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진구줄넘기협회가 등급 및 가입심의회에서 준회원단체로, 광진구삼보협회가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가입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윤재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돈 회장님

이 사(김승돈) : 예, 김승돈 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삼보협회 회장님 계시던가 아니면 삼보협회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모르는 사항 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의 장(윤재상) : 네, 제안 설명 해주세요.

사 회 자(이용진) : 네, 지금 삼보협회는 3개 단체 80명을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도 인준된 단체인데, 일단은 정회원단체가 되려면 준회원단체로 활동을 하고 정회원은 5개 이상 150명 클럽의 인원수가 되어야하는데요. 삼보는 아직 그 정도까지 볼륨이 크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삼보는 인준단체로 활동하고자 저희 광진구 체육회에 가입승인을 얻고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사(윤영유) : 아니, 삼보라는 것이 좀 생소해가지고요. 어떤 것인지

사 회 자(이용진) : 삼보라 하시면 쉽게 운동선수 효도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쪽에 씨름과 비슷한 상대편의 중심 넘어뜨리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사(장성대) : 인정단체와 인준단체의 차이가 있나요?

사 회 자(이용진) : 네, 인정단체는 더 아랫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서울시내에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거의 출발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최두호) : 그러면 인정단체하고 준회원단체는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 회 자(이용진) : 없습니다. 네.

의 장(윤재상) : 삼보는요. 유도, 씨름 뭐 전부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 거기에서 장점만 모아서 만들어진 단체가 삼보라고 하는데요. 유도라던지 씨름이라던지 또 권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삼보가 된 운동이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인정단체는 삼보란 단체가 광진구에 있다. 그 정도지 의결권이나 우리가 지원해주나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서울시나 전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구에서부터 인정단체로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데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 그런 절차입니다.

이 사(이용만) : 예산은 배정된 것 아닙니까?

의 장(윤재상) : 예산은 배정 없습니다.

이 사(이용만) : 의결권도 없고?

사 회 자(이용진)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윤영유) : 여기에 보면 히든삼보, 리얼삼보, 자양삼보, 레드삼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동호회 명칭입니까?

사 회 자(이용진) : 체육관으로서 클럽 활동을 해서 명단을 제출한 클럽입니다.

이 사(윤영유) :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체육관에 있는 것이군요.

사 회 자(이용진) : 네.

의 장(윤재상) : 또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 사(전원) : 네네.

의 장(윤재상)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두 번째 안건인 광진구체육회 정관 개정 총회 안건 상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 회 자(이용진) : 네, 의결주문. 광진구체육회 정관 개정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 한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승인을 거쳐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광진구체육회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1072호,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역진흥팀-1169호와 관련하여 지방체육회 법인 표준정관을 수정해야 함에 따라 광진구체육회 정관 개정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니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윤재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최두호) :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 장(윤재상) : 네, 말씀하세요.

이 사(최두호) : 저희가 여기서 정관 개정을 하면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좀 강화 되는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표결을 받아야합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의 장(윤재상) :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총회로 넘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최두호) : 절차예요?

의 장(윤재상) : 네.

이 사(최두호) : 알겠습니다.

의 장(윤재상) : 제안 설명 하면 그래요. 정관이 그전에는 규정이었거든요. 규정인데 법인단체가 되면서 정관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말씀해주시고. 없습니까?

이 사(전원) : 네, 없습니다.

의 장(윤재상)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번째 안건인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 회 자(이용진) : 네, 의결주문.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체육회가 2021년 5월 10일 법인화 과정을 거쳐 최종 6월 9일자로 법인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 규정을 규정으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기존 광진구체육회 제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 생활체육지도자운영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성희롱 성폭행 예방 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윤재상) :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김승돈) : 의견 없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면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의 장(윤재상) :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년 초에 제 규정을 작성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제 규정이 아니고 규정이 정관으로 바뀌고 제 규정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도 그것을 준용을 했지만 신설인 것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니까요. 지난번 제 규정 규정했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을 했고 신설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 및 성희롱 성폭행 예방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사(이용만) : 국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 회 자(이용진) : 법인설립이요?

이 사(이용만) : 예 규정 제정이요

사 회 자(이용진) : 규정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정관을 그대로 준용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즉 생활체육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새롭게 추가해서 넣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을 따라가지만 체육회 자체에서 추가해야 되는 규정들이 첨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윤영유) : 첨부된 내용은 보내준 자료에 있는 거죠?

사 회 자(이용진)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윤영유) : 여기 지금 없으니까는

의 장(윤재상) : 설명을 드리자면 규정집 미리 보내드렸죠. 이걸 지금 의결하는 것인데 새로 추가된 것은 인사규정이 생활체육지도자운영규정이라고 앞전에 개정을 했었죠.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인사규정역할을 하게 되어 인사규정을 제정했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을 추가로 했다는 것을 지난번 의결한 외로 이번에 참고적으로 살펴보실 사항인데 미리 살펴보셨으리라 여기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없습니까?

이 사(전원) : 네

의 장(윤재상) :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진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에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 기타의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견 토의를 통해 이사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성대) : 안녕하세요. 풋살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광진구체육회 이사 장성대입니다. 제가 건의는 아니고 앞으로 광진구체육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체육인 또 서울로 따지면 25개구 체육인들이 앞으로 가야될 길은 지역스포츠 문화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체육회 종목단체를 돌아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20,30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광진구는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날 친구들은 제1의 고향이예요. 저는 광진구체육회에 앞으로 우리가 유, 청소년 및 20, 30대 젊은 친구들의 스포츠문화 클럽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축구로 따진다면 제가 2006년도에 축구, 풋살을 접할 때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클럽문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2021년도에는 2027년 11월에 스포츠는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 청소년 그리고 투표문화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당겨지고 있는데 제가 안건을 드리는 것은 광진구에도 유, 청소년 모든 종목에 스포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광진구체육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는 스포츠 문화가 정착이 되고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드리는 것은 광진구 내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성인여자 모든 계획을 잡으셔서 수립을 하셨으면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 장(윤재상)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면 더 듣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풋살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체육회가 엘리트 생활체육이 통합을 했습니다. 전국이 다 통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 운영이 광진구는 생활체육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학교체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지금 학교체육들이 사실은 통합을 했으면 광진구체육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단체들이 학교체육에서 하는데 광진구체육회에 가입했을 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무슨 단체가 있는지 파악정도만 할 수 있

는 영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변화가 절실합니다. 통합을 했으면 통합운
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 아쉽다는 얘긴데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엘리트체육을 광진구체육회로 일부를 흡수 하려고
예산변경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젊은층을 지도할 수 있는 영향에 못 미치고 있다. 흡수를
못 하고 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자치구 체육회가 광진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생활체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위주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도 취미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취
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연세들이 많은걸
인정하고 단, 장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운영진이 연세가 많은 것도 맞습니다. 단체
에서 임원을 선정하는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좀 젊은 분들이
하면 지도하는데 도움이 더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단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회장직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적
인 분이 하시면 그 단체가 육성이 빠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장성대) :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종목단체에서 나이가 많아서 하지말라가 아니
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이란 자체는 성인들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스포츠문화가 지역에 정착이 됩니다. 예를 들면 70대, 80대들 광진구에
서 40년에서 50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대에도 만들어져야하는데 그게 아
니라 한번 만들어진 부분만 끝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가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광진구체육회에서 테니스다 그러면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
육이 연계가 되어주어야 앞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서 지역별로 단계별 연령별로 되어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 장(윤재상) : 생활체육이 모든 것이 걷는 것이 체육이잖아요. 아침에 걷는 것
도, 움직이는 것도 생활인데 지금 우리가 학습을 못하고 지도를 못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젊은이들은 학교체육을 교육을 받고 있으니깐 그분들이 나와서 여가생
활을 해야지 생활체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는 시간이 없으니깐 엘리트를 흡수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정식교육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마다 학교에 있는 클럽들을 등록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깐요. 조금 돌아가는 상
황을 같이 의논 해갑시다.

이 사(김승돈) :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장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유소년 클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은 체육에서 하는 것 보다 종목단체에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파

크골프에도 제 작년에 유소년팀을 12명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의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장길호) : 산악연맹을 맡고 있는 장길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3년 전에 합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악연맹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서울특별시 등산연합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체육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정상적으로 등록은 되어있는데 여기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 산악연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 장(윤재상) : 그 문제는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트랑 생활체육을 통합을 했는데 분리를 해달라는 곳이 등산입니다. 우리는 등산연합회였는데 등산연맹으로 바뀌었죠. 산악연맹하고 등산연합회하고 합쳐가지고 등산연맹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등산연합회가 독자적으로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이라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런다고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단체의 성능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사(장길호) : 서울특별시 등산연합회가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어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체육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산악연맹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산악회에 대의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각 구에 한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예요.

의 장(윤재상) :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이 걸려요.

이 사(장길호)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발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 장(윤재상)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사(김승돈) : 여러분 이사님들 체육회, 문화체육과, 치수과 구청에 계신 분들이 협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광진구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천 생태복원 녹지사업 나와 있는데 파크골프장도 만들었다고 해주셨다면 홍보도 잘되고 그럴 텐데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 장(윤재상) : 이상 없으면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오랜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회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이사회 폐회를 선언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